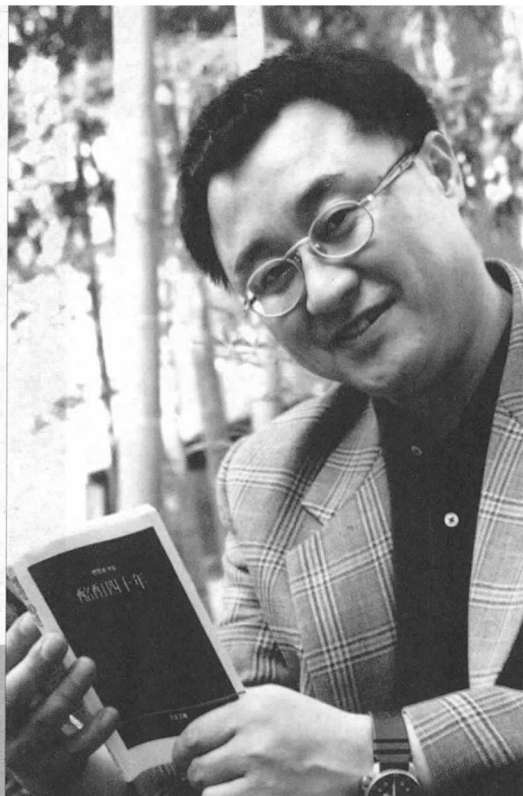


“비굴하지 않은
마음으로 즐겁게
마시는 술만큼
좋은 것은 없다”

박종원 교수가 뽑은
수주 변영로의 《명정40년》



“요즘 사람들은 비즈니스로 술을 마십니다. 술의 목적은
각성제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술의 풍류를 담은
《명정40년》은 우리를 뒤돌아보게 만듭니다.”

“무일무취(無日無醉), 단 하루도 취하지 않은 날이 없다.”

이쯤 되면 나이 지극한 분들은 누구의 말이라는 것을 짐작할 것이다. 바로 수주 변영로(樹州 卞榮魯) 선생이 남긴 말. 수주는 암울했던 일제시대 술에 얽힌 아사를 많이 남긴 지식인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그는 매일 술을 마시면서도 주도를 지킨 사람이다. 특히 술을 즐겁게 마셔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비록 술이 자기 몸을 좀먹더라도 비굴하지 않은 마음으로 마실 수 있다면, 좋은 사람과 만나 기분 좋게 마실 수 있다면 더 이상 좋은 것이 없을 겁니다.”

영화감독이자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에서 영상연출론을 가르치고 있는 박종원 교수(41)가 수주의 말을 빌어 풀어낸 '술 예찬론'이다. 그가 술에 대해 나름대로 확고한 견해를 가지게 된 것은 고교시절 국사 선생이 권한 한권의 책 때문. 그는 서가에서 누렇게 퇴색한 수주의 《명정40년(醕酌40年)》(범우문고)을 꼽아 든다.

“70년대 말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때 울분을 삭이기 위해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러나 술은 인생을 고민하기 위해 마실 것이 아닙니다.”

무작정 술을 퍼마시던 시절 읽게 된 《명정40년》을 통해 술의 목적을 새삼스럽게 깨달은 그는 지금도 가능하면 즐겁게 술을 마시려고 노력한다. 의롭지 못한 술, 편하지 않은 자리에서 마셔야 하는 술을 거절할 줄 아는 마음도 새겼다.

“요즘 사람들은 비즈니스로 술을 마십니다. 술의 목적은 각성제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술의 풍류를 담은 《명정40년》은 우리를 뒤돌아보게 만듭니다.”

책 속에는 시대적 울분을 토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 또한 스스로 유별나게 살았다는 이야기도 없다. 그저 술을 기분 좋게 마실 수 있었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비극은 눈물을 먹고, 희극은 술을 마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술의 목적은 즐거움에 있습니다. 그 목적이 제자리를 찾으면 세상은 그만큼 투명해질 겁니다.”

술판을 희극판으로 이끌 줄 아는 수주의 글에서 오래 묻어둔 술의 향취를 느낄 수 있었다.

— 오원진 기자

열린 마당

가장 좋은 책을
만들어 드립니다.

- ① 출판의 승부는 기획·편집에 있습니다. 저희 열린마당에서는 경험과 識見을 갖춘 頂上의 편집자·출판미술가·사진작가 등이 온힘을 모아 '21세기를 준비하는 출판물'을 기획·편집하고 있습니다. 雄飛하는 동반자이기를 기대합니다.
- ② 베스트셀러 생활도서·유아도서 및 교구·오디오·비디오 기획·제작의 광범위한 실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 ③ 종합마케팅플랜에 근거한 표지·광고·팝플렛도 기획·제작하고 있습니다.

기획·원고작성·번역·편집·디자인·제작代行

110-121 서울·종로구 종로1가45 서울빌딩601호
전화 : 739-0150(代) 팩스 : 739-0160



高品質의 제작

이때까지는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제판·인쇄·제본 등의 工程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했고 인력부족 등으로
품질이나 납기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삼덕미디어에 맡겨 주십시오.
책임제작시스템으로 정성스럽게 제작하여 高品質의
출판물을 납기일에 어김없이 납품하겠습니다.



110-121 서울·종로구 종로1가45 서울빌딩601호
전화 : 739-0150(代) 팩스 : 739-0160
인쇄·제본공장 : 465-4707(代)